



1 군청 전경 2 허필홍 홍천군수 3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벌이는 자원봉사단체 4 수제 마스크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들

## 홍천군 민선 7기 후반 목표 '자치·혁신'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가 7월 1일 "후반기 군정 주요 이념과 가치를 '자치와 혁신'으로 정해 새로운 홍천강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허 군수는 군청에서 열린 민선 7기 기자회견에서 "자치를 위해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에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치를 위해 조만간 개장하는 어린이 놀이터와 물놀이장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고자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한 '비전 2030'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특히 허 군수는 홍천이 앞으로 영서내륙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를 최우선으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군수는 "철도 유치를 염원하고자 경기 용문과 홍천 경계지점에 기차를 놓고 서로 밀고 당기는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며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여는 등 유치 확산 분위기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올러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계획과 지역에 있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연구소, 메디컬허브연구소 등과 집적화된 K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또 자치 강화의 일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할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책무와 설치 운영, 실무팀 편성,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사항 등이 담겼다. 이로써 재난 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단의 즉각적인 기동이 가능하게 됐다.

홍천군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종 재난·재해 대비는 물론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구와 안정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 홍천강 시대를 여는 용문~홍천 철도 34km

우리의 후손에게 철도여행이 일상인 삶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함입니다.